



기증자료

제주인 삶 조명 자료들 기증 잇달아

민속자연사박물관, 생활·역사자료 및 근현대 미술품 등 올해 146건 240점 자료 기증받아... 12월엔 기증전 계획

제주 생활·역사자료 및 근현대 미술품 등이 잇달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에 기증됐다. 박물관은 올 12월 기증 자료들을 한자리서 선보이는 기증전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박물관은 올해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7명의 도민을 통해 146건 240점의 자료를 기증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부춘성·현진숙·변수녀 씨로부터 21점, 안 씨의 유품인 제주 관련 근현대

대), 생활 한복(1960~70년대), 늦제기 일괄(1950~60년대)을, 고만옥·강인순 씨로부터는 본인이 직접 사용했거나 유족 혹은 지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무구(巫具) 자료 등을 전달받았다.

전창호 씨는 아버지 전일화 씨의 유품인 1950년대 제주 각 지역별 대물자동차 운임표 및 운전면허증 등 근현대 제주 생활사 자료를 건넸다.

강순옥 씨는 배우자 고(故) 고경완 씨의 유품인 제주 관련 근현대

미술품 22점을 기증했다. 박물관은 기증받은 22점의 미술품은 청탄 김광추·소암 현중화·근재 김순겸·동암 강경창·백암 오혁태 등 제주 출신 서예가 작품을 비롯 전라도 진도 출신 치련 허의득과 월성 이달재 화백의 수묵화 및 제주도 풍경을 그린 유화 작품 등이 있다고 전했다.

박찬식 관장은 도민들의 잇단 자발적 기증에 감사를 표하며 “올해 12월 기증 자료들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집한 기증자료들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기증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제주어로 세대 소통... 찾아가는 독서활동

한라도서관, 어린이집 연계 오는 7월까지 10주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이 이달부터 도내 어린이집과 연계한 찾아가는 독서활동 사업을 진행한다.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확산시키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한 지역 어린이집 21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10주 동안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동화구연자격을 보유한 어르신들이 도내 어린이집

을 찾아 인형소품 등을 활용해 제주어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라도서관은 제주어로 동화구연이 가능한 어르신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3년간(2020~2022년) 독서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했으며,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과정 수료자 16명을 선발했다.

장지미 한라도서관장은 “이번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점차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책을 매개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작은 장엄 미사’와의 만남 서귀포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이 이번엔 조아키노 로시니의 ‘작은 장엄 미사’를 선보인다. 오는 6월 8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76회 정기연주회를 통해서다.

관악비전의 반주로 연주되는 이날 공연엔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송윤진, 테너 박용, 베이스 우경식이 함께한다.

공연은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은 서귀포시 E-Ticket에서 하면 된다. 오은지기자 eijoh@ihalla.com

제주 해녀와 일본 아마... ‘해녀삼촌이 간다’

해녀박물관, 한일해녀 사진전 6월 30일까지 문화갤러리서 서울·오사카·도쿄 등지서도

점점 사라져가는 제주 해녀와 일본 아마(해녀)를 알리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이 문화갤러리 세 번째 전시로 선보이고 있는 한일해녀사진전 ‘해녀삼촌이 간다’다.

오는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선 제주해녀를 촬영한 윤영원 사진작가와 일본 아마 사진을 찍은 스가와 히데유키 작가의 작품 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윤영원 작가는 2016년부터 제주 해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주도에 내려와 성산, 위미, 월정, 고산 등지를 찾다니면서 해녀들과 직접



소통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아마 사진은 대마도에서 활동하는 스가와 히데유키 작가가 가네자키, 이끼, 대마도 지역 등에서 촬영한 사진 15점이 내걸렸다.

두 작가는 이번 해녀박물관 전시를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해 일본 오사카, 도쿄 및 해외에서도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한편 해녀박물관은 2021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갤러리 전시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작가들이 친숙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가 끝나면 7월 제주바다를 표현한 공예 작품 전시가, 9월엔 문지숙 작가의 제주해녀 출항물질 사진 전시, 이어 10월엔 김영중 작가의 해녀 소재 판화작품 전시가 예정돼 있다. 오은지기자

원도심 발길 닿는 곳마다 예술 향기

이아, 변금운·나현정 개인전 산지천갤러리 ‘아마도, 황홀’

제주시 원도심 내 위치한 예술공간 이아와 산지천갤러리에서도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

예술공간 이아 지하 1층 1전시실에선 제주문화예술재단 2023년 예술공간 이아 우수작가 선정 첫 번째 전시인 미디어아티스트 변금운 작가의 ‘사물의 시간(Time of Things)’이 진행 중이다.

작가는 자신과 사물을 ‘지금’의 시간 위에 올려, 생(生)의 존재로써 ‘살아있음’을 애니메이션 기법과 설치를 활용해 보여준다. 전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다. 전시장에선 약 10여 점의 설치·영상작품을 마주할 수 있다.

이아 2전시실에선 일반 대관 전시인 나현정 작가의 ‘RE:불도망’을 만날 수 있다. 종이조각을 통한 입체작품, 무대미술, 그림자극 등 다양한 예술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현정 작 '할망나무-엄마의 시간'



변금운 작 '춤추는 정원사' (영상 스틸 이미지)

나 작가의 독특한 조형적 표현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다. 전시는 어린 생명에 대한 사회학적 시선과 신화 ‘삼승할망’ 탐구에서 출발한 생명존중과 보살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전시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산지천갤러리에선 올해 우수기획 선정전인 ‘아마도, 황홀’이 관객을 맞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제주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간과 자연, 개발과 균형이라는 문제의식에

서 시작됐다. 전시 기획을 맡은 김유민은 “제주의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엔 김명선·문봉순·박정근·양동규·한용환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이어지며, 6월 10일엔 김동현 평론가의 강의와 함께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오은지기자

수축상
CONGRATULATIONS

2022-23년도 국제로타리 '초아의 봉사상'



고 권 진
(국제로타리 3662지구 2020-21년 총재)
(제주양돈농협조합장)

2022-23년도 국제로타리 '초아의 봉사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제로타리3662지구 지구임원(2020-21년도) "력키세브화" 회장 이수철 의 회원 일동

수축상
CONGRATULATIONS

2022-23년도 국제로타리 '초아의 봉사상'



고 권 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2022-23년도 국제로타리 '초아의 봉사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제주양돈농협 임원 일동

당축선
CONGRATULATIONS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김 기 춘
형술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향우회 회원일동

MUSIC ACADEMY
하모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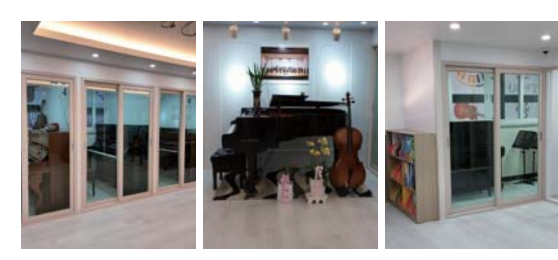
하모니 음악학원 수강생모집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클라리넷, 색소폰, 우쿨렐레, 기타, 드럼, 오카리나, 하모니카, 장구 (과목별 전공 선생님)

5세부터 시작하는 "유리드믹스" 피아노

★ **제주 그랜드 오케스트라** ★
단원모집 (학생반/성인반)

1. 모든 악기 기초부터 레슨
2. 저렴한 레슨비 (개인 및 그룹레슨)
3. 정기적인 오케스트라



하모니 음악학원
★ 노형동 수목3길 33, 3층 (노형초 후문)
☎ 문의 : 064)744-7763 ☎ 010-2030-7763